

스페인어 교재에서의 담화 표지어 분석과 효과적인 교수 방안 연구

심영식
선문대학교

심영식 (2012), 스페인어 교재에서의 담화 표지어 분석과 효과적인 교수 방안 연구.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가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교재 'Ele actual', 'Gente'를 A1에서 B2까지 레벨별로 분석하고 좀 더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분석한 교재에서는 담화 표지어에 대한 설명이 B1 또는 B2 수준에서 시작되나 교재에서의 실제 언어 사용을 살펴본 결과 A1부터 담화 표지어의 소개와 설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기초적인 대화에서의 답변을 위해서도 담화 표지어의 설명과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며 읽기와 듣기를 위해서도 담화 표지어의 설명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교재의 읽기를 위한 텍스트에서의 실제 담화 표지어 사용을 살펴봐도 그 필요성은 명확하며 듣기에서도 추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담화 표지어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즉 모든 언어 수준에서 그리고 구어, 문어체 모두에서 담화 표지어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교재에서의 담화 표지어의 실질적인 사용을 근거로 각 언어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구어, 문어체에 따라 담화 표지어를 분류해 보았다. 또 기본적인 담화 표지어 소개에 있어서도 스페인어 모국어인을 위한 소개와 분류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 관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류를 모색해 보았다.

핵심어 담화표지어, 스페인어교육, 스페인어교재

I. 서론

스페인 담화 표지어는 ‘pues’, ‘además’, ‘en cambio’ 등 변하지 않는 고정 언어 단위로서 담화에서의 내용전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가장 큰 기능은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 담화 내 두 요소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담화 결속성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글로 되어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화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역할도 하고 대화 주제를 바꾸기도 하며 청자, 화자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서도 담화 표지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단순히 언어적인 문장 구성 능력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에서는 답변을 시작할 줄 알아야 하고 말한 것을 정정할 줄도 알아야 하며 글을 읽거나 쓸 때도 텍스트의 결속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담화 능력이 필수적이며 담화 표지어의 습득은 실제 담화 구현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스페인어 담화 표지어의 효과적 교수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교수방안을 위해 우선 스페인어 교재¹⁾에서 담화 표지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데 이는 두 가지 목적에서다. 첫 번째는 현재 스페인어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서 모국어로서의 스페인어 담화 표지어 연구가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교재에서의 기존 교수방안 분석 결과는 더욱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관점에서 스페인어 모국어 사용자가 제시해 놓은 설명과 연습을 외국인

1) 스페인어 교재라 하면 국내외 다양한 교재를 통칭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육 교재에 국한하기로 한다.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분야의 시류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스페인어 담화 표지어 교수 방안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그리고 외국인 교수자 입장에서 체험해 보는 것은 제시된 방안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고 더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효율적인 분석과 교수 방안 제안을 위해 우선 스페인어 담화 표지어의 특징과 분류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어 교재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스페인어 담화 표지어의 특징과 분류

스페인어 담화 표지어는 스페인어의 화용론 또는 텍스트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언어요소중 하나이기도 하고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갖기도 했다. ‘marcadores del discurso’, ‘conectores’ 또는 ‘relacionantes supraoracionales’ 라 불리기도 했고 그 분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Martín Zorraquino y Portolés(1999)의 명칭과 분류를 따르고자 하며, 이는 가장 포괄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집대성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1. 담화 표지어의 특징

- 담화 표지어는 자체의 형태 구문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성격에 따라 담화 구성 요소간의 추론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형태론적으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언어 단위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 a) Llueve y, *por tanto*, la gente lleva paraguas.
- b) Llueve y, *por este motivo*, la gente lleva paraguas.(Portolés 1998, 57)

a)의 ‘por tanto’ 와 b)의 ‘por este motivo’ 는 똑같이 결과를 이끄는 접속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a)의 ‘por tanto’ 만 담화 표지어로 분류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담화 표지어가 불변의 고정된 언어 단위라는 특징 때문이

다. 예를 들어 ‘por este motivo’는 다른 수식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성, 수가 변화하여 ‘hasta por estos pequeños motivos’라는 표현으로까지 변화할 수 있지만 ‘por tanto’는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por este motivo’와 비슷한 형태의 ‘por ello’, ‘por eso’, ‘por esto’, ‘por esta razón’, ‘por esta causa’, ‘a causa de esto’는 담화 표지어에 포함되지 않는다.²⁾

- 담화 표지어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위치 변화가 가능하며 이는 항상 문장의 앞에 위치해야 하는 일반 접속사와 다른 점이다.

a) Juan estaba cansado. No obstante, continuó su camino.

b) Juan estaba cansado. Continuó, no obstante, su camino.

c) Juan estaba cansado. Continuó su camino, no obstante.(Portolés 1998, 54)

예를 들어 ‘aunque’, ‘a pesar de que’, ‘pese a que’ 등은 앞의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여 같은 의미를 갖게 할 수는 있지만 ‘Juan estaba cansado’ 문장의 앞 이외의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없는 것이다.

- ‘y pero’ 또는 ‘aunque pero’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접속사와 접속사는 함께 올 수 없지만 접속사와는 다른 문법 특징을 갖고 있는 담화 표지어는 다음의 예와 같이 접속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n la casa había dos criados y dos criados, viejos todos; pero además vivía allí un tullido, hijo de una lavandera.(Portolés 1998, 53)

- 일반적으로 쉼표 사이에 위치하며 별도의 억양 그룹을 형성하는데 이는 담화 표지어가 문장 내의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물론, 이러한 담화 표지어의 형태론적 특징과 그에 따른 분류로 위의 예에서 ‘por tanto’ 이외 다른 표현들은 담화 표지어로 분류되지 않지만 외국어 교육 측면에서 같은 기능과 의미를 가진 표현을 함께 설명할 것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교재 분석 후 해당 부문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2. 담화 표지어 분류

Martín Zorraquino y Portolés(1999)의 분류를 따르되, ‘bueno’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 따라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bueno’가 다른 담화 표지어와 다르게 다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로 분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동을 막기 위함이다.

- Estructuradores de la Información(정보구성 표지어)

- a) comentadores(도입어): *pues, bien, pues bien, bueno, así las cosas, dicho esto, etc.*
- b) ordenadores(정보정렬어)
 - marcadores de apertura(시작표지어): *primero, en primer lugar, primeramente, por una parte, por un lado, de una parte, de un lado.*
 - marcadores de continuidad(계속표지어): *en segundo/tercer/.../lugar, por otra (parte), por otro (lado), por su parte, de otra (parte), de otro (lado), asimismo, igualmente, de igual forma/ modo/ manera, luego, después.*
 - marcadores de cierre(종결표지어): *por último, en último lugar, en último término, en fin, por fin, finalmente.*
- c) digresores(탈제어): *por cierto, a todo esto, a propósito.*

- Conectores (접속어)

- a) conectores aditivos(부가접속어): *además, encima, aparte, incluso.*
- b) conectores consecutivos(결과접속어): *pues, así pues, entonces, por tanto, en consecuencia, por consiguiente, por lo tanto, por ende.*
- c) conectores contraargumentativos(역접속어): *en cambio, por el contrario, al contrario, sin embargo, no obstante, con todo, ahora bien.*

- Reformuladores (환언 표지어)

- a) reformuladores explicativos(부연설명표지어): *o sea, es decir, en otras palabras.*
- b) reformuladores rectificativos(정정표지어): *mejor dicho, más bien, bueno.*
- c) reformuladores de distanciamiento(절연표지어): *en cualquier caso, de cualquier manera, de todos modos.*

d) reformuladores recapitulativos(결론표지어): *en suma, en conclusión, en resumen, bueno.*

- Operadores discursivos (논증강화작용어)

a) operadores de refuerzo argumentativo(논증강화표지어): *en realidad, de hecho, claro, desde luego, en efecto, la verdad, en el fondo, en rigor.*

b) operadores de concreción(예시표지어): *por ejemplo, en concreto, en especial.*

- Marcadores de control de contacto(담화대상표지어): *hombre/mujer, mira/mire, oye/oiga.*

III. 교재에서의 담화 표지어 분석과 교수방안

스페인어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대상이 될 교재를 선정해야 했고 교재의 레벨도 고려해야 했다. 교재와 레벨 선택에 고려했던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 교재 별로 담화 표지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교재 선정

교재는 담화 표지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보기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교재를 선정하고자 했으며, 선정을 위해 외국어로써 스페인어 교육에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섯 명의 스페인 교수³⁾의

3) 모두 Antonio Nebrija 대학에서 A1부터 B2 또는 C1까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진이다. Antonio Nebrija 대학은 1986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강좌를 하고 있고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 관한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있어 매년 유능한 스페인어 교육전문 교수들을 배출하고 있다. 스페인어 교육 석·박사 과정과 스페인어 강좌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스페인어 교육 관련 가장 전문화된 교육기관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의견을 참조했다. 스페인어 교재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 세 가지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중 두 가지 교재를 선택하고자 했다. 언급된 교재들은 ‘Ele actual’, ‘Gente’, ‘Aula internacional’, ‘Español sin fronteras’, ‘Abanico’ 였고 이 중 다섯 명의 교수들에게 가장 공통된 선택을 받은 교재는 ‘Ele actual’ 과 ‘Gente’ 였다. 물론, 다수의 교육기관에 속한 더 많은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더 객관성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본 연구 과제를 실행하기엔 다섯 명 교수진의 의견으로도 충분하단 생각이다. 다섯 명 모두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관련 학위가 있고 스페인어 교재 집필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통용되고 있는 교재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한 의견에 따라 ‘Ele actual’ 과 ‘Gente’ 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후 언급된 다섯 교재들을 살펴본 결과 교재 선정이 합리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Ele actual’ 과 ‘Gente’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교재는 ‘Aula internacional’ 이었는데 이 교재는 ‘Gente’ 와 같은 출판사로서 ‘Gente’ 저자 중 한 분이 출판에 관여했기 때문에 ‘Gente’ 와 ‘Aula internacional’ 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한 명의 선택을 받은 ‘Abanico’ 는 중고급 이상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레벨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했다.

교재 선정과 함께 고려한 것이 교재의 레벨이었는데 분석대상은 A1, A2, B1, B2로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스페인어 습득을 시작하는 한국인 학습자의 스페인어 언어능력이 기준이었고 이들이 대학 4년 이후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언어능력 수준을 B2로 삼았기 때문이다.⁴⁾ 물론 개인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나고 C1, C2까지 그 언어 능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B2를 넘어서는 수준을 갖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대학생 학습자 수준을 감안하여 교재 레벨은 A1, A2, B1, B2로 결정했다.

4) 필자가 교육하고 있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Dele 시험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은 B2였고 이들 중 거의가 1년 정도 현지에서의 연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 교재 분석

Ele, Gente 두 종류의 스페인어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에 대한 언급과 설명은 Ele는 B2에서 그리고 Gente는 B1에서 시작된다. 사실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만 보려면 담화 표지어에 관한 언급이 있는 부분만 상세히 살피고 언급이 시작된 레벨에서 그 분석을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담화 표지어 언급에 상관없이 두 종류 교재의 A1에서부터 본문에서의 담화 표지어 사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담화 표지어의 사용이 실제 어떤 레벨에서 사용이 시작되고 또 어떤 담화 표지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각 레벨에 필요한 담화 표지어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A1부터 설명이 필요한 담화 표지어를 소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학습자 관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담화 표지어를 다시 분류하고자 한다.

1) Ele actual A1

스페인어에 처음 입문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이므로 담화 표지어에 관한 설명이나 연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도 담화 표지어의 사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담화 표지어를 소개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A: Buenos días , señora López. ¿Qué tal está?

B: Muy bien, gracias. ¿Y usted?

A: Bien también. **Mire**, le presento a la señorita Molina, la nueva secretaria. La señora López.(Ele A1, 38)⁶⁾

Pues voy al campo muchos fines de semana. Los sábados que estoy en

5) 교재에 첨부되어있는 청취 자료까지 분석했다면 더 많은 담화 표지어 사용의 예가 나올 수 있다.

6) 인용문일 경우 당연히 (저자 출판년도, 페이지)를 명시해야 하나 예시문이 나오는 책의 이름과 레벨을 표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되므로 (책명 레벨, 페이지)로 출처를 밝힘.

Madrid me levanto a la hora de todos los días y a veces voy de compras...(Ele A1, 131)

첫 번째 대화의 ‘mire’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호격으로 담화대상 표지어(marcador de control de contacto)에 해당되며 ‘mira’와 함께 사람을 소개할 때나 물건을 사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의 ‘pues’는 담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도입어(comentador)로서 입문 수준의 교재일지라도 그 사용 횟수가 적지 않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예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A: ¿Cuál es tu estación preferida?

B: La primavera porque hace buen tiempo, todo está verde, ...

A: **Pues** mi estación preferida es...(Ele A1, 111)

A: Yo creo que el portugués es muy fácil.

B: **Pues** yo creo que es difícil.(Ele A1, 157)

일반 대화에서 앞 사람의 말과 다른 의견을 내는 상황으로 ‘pues’는 이전의 예처럼 도입어(comentador)로 설명하면 될 것이며 특히 다음의 설명의 예와 병행하면 그 이해가 빠를 것이다.

• Lo utilizamos para dar énfasis al sujeto o para marcar una oposición.

A: Yo trabajo en un banco.

B: **Pues** yo soy estudiante. (Ele A1, 182)

교재 마지막 부분의 문법 요약(resumen gramatical)에 나오는 설명으로 주격인칭 대명사를 써야하는 상황을 말한 것이나 ‘Yo’와 함께 대조되는 상황에서의 ‘pues’의 용법도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le A1에서는 도입어(comentador)로서 ‘bien’의 예도 나오며 ‘además’, ‘entonces’, ‘en cambio’, ‘sin embargo’와 같은 부가, 결과, 역 접속어가 주로 문화, 인물을 소개하는 텍스트에 나타난다.

2) Ele actual A2

Ele actual의 A2에서도 담화 표지어에 한정된 설명이나 연습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에서나 읽기를 위한 텍스트에서 담화 표지어의 사용은 A1보다 훨씬 다양하다. 먼저 대화에서의 담화 표지어 사용의 예를 보면,

A: ¡Qué cansado estoy!

B: ¿Sí? ¡**Pues** yo no!(Ele A2, 28)

A: ¿Cómo lo quiere?

B: **Pues** rojo y... no sé... Sí, de algodón.(Ele A2, 76)

Pues yo no podría decir ahora cuál ha sido el mejor regalo de mi vida.

[...]. **En fin**, todos tuvieron un significado especial para mí, no puedo decir que uno fue mejor que otro.(Ele A2, 172)

‘Pues’는 앞선 A1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담화 표지어이며 첫 번째 대화의 예에서처럼 대조 상황에서 답변을 시작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두 번째 대화에서처럼 단순히 답변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도입어(comentador)이다. 특히, 세 번째의 예에서는 담화를 시작하고(‘pues’) 끝낼 때(‘en fin’) 사용하는 담화 표지어의 예가 잘 나타나 있다.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을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종결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이다. 대화에서는 ‘Pues’ 이외에 다양한 담화대상 표지어(‘hombre’, ‘mujer’, ‘oye’, ‘oiga’, ‘mira’)가 사용되었고 결과접속어 ‘entonces’와 논증강화 표지어 ‘claro’의 사용이 나타났다.

A: **Oye**, ¿nos vemos mañana por la tarde?

B: Vale. De acuerdo. ¿Y qué podemos hacer? ¿Hay algo interesante?

A: **Pues mira**, hay una exposición de Miquel Barceló en el ReinaSofia.

B: ¡Ah! Muy bien. Me encanta Miquel Barceló. ¿Cómo quedamos?

A: No sé... podemos quedar a las cinco en la puerta.

B: Es que no me va bien tan pronto. ¿Qué te parece a las seis?

A: Vale. **Entonces** quedamos a las seis.(Ele A2, 139)

Cuando hablo español, quiero elegir bien las palabras y, **claro**, hablo muy despacio.(Ele A2, 10)

(En aquella época) No había teléfono y, **claro**, la gente no hablaba por teléfono.(Ele A2, 180)

첫 번째의 대화에서는 ‘oye’, ‘mira’, ‘pues’, ‘entonces’ 등 다양한 담화표지어 사용의 예가 나오기 때문에 대화에서의 용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예에서는 논증을 강화시키는 담화 표지어 ‘claro’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대화가 아닌 강독 텍스트에서는 부가접속어 ‘además’, ‘incluso’, 역 접속어 ‘en cambio’, ‘por el contrario’, 그리고 담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계속 표지어로서의 ‘igualmente’, ‘por otra parte’가 사용되었으며 다음 텍스트는 이러한 담화 표지어의 예를 총괄해 보여주고 있다.

Los jóvenes españoles dedican la mayor parte de su tiempo libre a estar con los amigos. [...]. **Además**, ven mucho la televisión, [...]. Los adultos, **en cambio**, pasan mucho tiempo en compañía de su familia y ven la televisión muchas horas a la semana. **Por otra parte**, las populares salidas al campo los fines de semana y las vacaciones de verano son los momentos en que los adultos disfrutan más del tiempo libre.(Ele A2, 164)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에 대한 설명이나 연습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처럼 다양한 담화표지어 사용의 예는 그 설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대화에서의 담화표지어는 숙지해서 사용하여야 할 줄 알아야 하는 요소이고 강독 대상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어도 최소한 그 용례를 이해하여 독해 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Ele actual B1

Ele B1에서도 Ele A1과 Ele A2에서와 마찬가지로 담화 표지어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 종류와 사용횟수는 더 많아졌다. 우선 새로운 담화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도입어(comentador)의 종류는 더 다양해졌다.

A: ¿Te parece difícil el español?

B: **Pues** no, no lo encuentro muy difícil.(Ele B1, 11)

“**Bien**, ahora estoy seguro de no equivocarme. Ahora soy un investigador en serio”.(Ele B1, 40)

A: **Bueno**, cuéntame. ¿Qué es de tu vida? ¿Sigues soltero?

B: Sí, pero hace un año que salgo con una chica y estoy muy contento.(Ele B1, 51)

기존의 ‘Pues’, ‘bien’ 과 함께 ‘bueno’ 가 새로운 담화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pues’ 의 경우엔 도입어(comentador) 기능 이외에 ‘entonces’, ‘por tanto’ 와 같이 결과를 이끌어 내는 conector consecutivo(결과 접속어)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ntonces me di cuenta de que sentía algo especial por él...(Ele B1, 38)

No existirá la pobreza extrema en la Tierra y, **por tanto**, nadie morirá de hambre.(Ele B1, 150)

A: Lo siento, jefe, no se enfade. Es que padezco de insomnio y esta noche no he pegado ojo.

B: ¡**Pues** busque una solución!(Ele B1, 82)

A: Es que no puedo; ahora tenemos muchísimo trabajo en la oficina.

B: **Pues** haz deporte, ve a nadar, trata de relajarte.(Ele B1, 94)

역 접속어(Conectores contraargumentativos)로는 A2에서와 마찬가지로 ‘en cambio’, ‘por el contrario’, ‘sin embargo’ 가 사용되었고 정보구성표지어로는 ‘por otra parte’ 말고도 ‘por último’, ‘por fin’, ‘finalmente’ 의 예를 볼 수 있었다.

Sin embargo, las grandes ciudades ofrecen a sus nuevos habitantes cosas que no tiene el mundo rural: modernos hospitales...(Ele B1, 131)

Por último, no debemos olvidar las aportaciones hechas al español por

los esclavos africanos llevados a América.(Ele B1, 18)

Deseo que el nuevo año sea generoso con todos, que se cumplan nuestros deseos, que aprendamos de nuestros errores, que desaparezcan las malditas guerras y que la paz sea, **por fin**, una realidad, no un simple deseo.(Ele B1, 76)

Pero él no se desanimó, volvió sobre los libros, rehízo experimento tras experimento y **finalmente** escribió en su diario.

이상은 앞선 대화에서 사용되었던 담화 표지어와 강독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담화 표지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예이기도 하며 B1에서는 논증을 강화하는 표지어로 예시 표지어 ‘por ejemplo’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

A mí me gusta mucho trabajar con algún compañero porque nos ayudamos mucho. **Por ejemplo**, cuando tengo dudas me las resuelve si puede, me corrige cosas que escribo...(Ele B1, 16)

A mí me da buen resultado asociar algunas palabras difíciles con ciertas personas o cosas. **Por ejemplo**, asocio la palabra vago con una persona muy vaga que conozco.(Ele B1, 78)

4) Ele actual B2

앞선 Ele A1, A2, B1과 다르게 Ele B2에서는 담화 표지어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6과 7과에 걸쳐 글쓰기, 말하기를 위한 담화 표지어를 소개, 설명하고 있고 다시 문법 요약(resumen gramatical)에서 종합해 그 예와 함께 정리하고 있다. 6과에서는 과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정보 구성하기(organizar), 원인 설명하기(expresar la causa), 결과 설명하기(expresar las consecuencias), 의견 부가하기(añadir ideas), 반대의견 표현하기(contrastar u oponer ideas), 요약 또는 결론 도출하기(resumir o introducir la conclusión)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담화 표지어를 소개한다. 특히 96, 97쪽에서는 작문(Expresión escrita)으로 제목을 설정하고 글쓰기를 위한 담

화 표지어를 실제 텍스트를 통해 소개하고 담화 표지어를 분류하는 연습이 나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란 생각이다. 실제 예가 없이 바로 필요한 담화 표지어를 소개한다면 그 응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담화 표지어가 실제 사용된 텍스트를 통해 소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도 그 이해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작문 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⁷⁾ 담화 표지어를 텍스트를 통해 소개하고 이후 실제 보고서(informe) 작성을 통해 연습을 하게 하는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앞서의 실제 텍스트 모델처럼 실제 보고서 모델이 아쉽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황과 자료가 주어지지만 실제 보고서 모델이 있었다면 학습자 입장에서 글쓰기 연습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실제 보고서를 통해 형식을 아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실제 언어 사용의 예는 학습자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7과에서는 과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크게 의견 말하기(expresar opiniones)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화하여 말하기(destacar o concretar algo), 명확한 정보전달(matizar una información), 부연설명하기(reformular explicando), 정정설명하기(reformular rectificando)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담화 표지어를 소개한다. 토론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담화 표지어를 소개하고 과의 마지막 'Recuerda'에서 네 가지 담화 표지어를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그 이해를 돕고 있다. 교재 말미의 문법 요약(Resumen gramatical)에서는 Ele B2에서 사용된 담화 표지어를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B2에서 다루어진 모든 담화 표지어를 망라하고자 했지만 6, 7과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pues', 'al final', 'en fin', 'además', 'entonces', 'al contrario', 'esto es', 'por ejemplo' 등도 빠져있고 A1, A2, B1 교재의 본문에

7) 사전을 사용할 때 예가 나오는 사전과 그렇지 않은 사전의 차이와 비슷할 것이다. 용례가 나오는 사전에서의 단어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용이한 것처럼 글쓰기에서도 실제 모델의 제시가 아주 중요하다.

〈표 1〉

Ordenar ideas	por una parte, por otra parte por un lado, por otro lado en primer lugar, en segundo lugar, en tercer lugar para empezar, para finalizar
Añadir ideas	además, asimismo, igualmente
Causa	debido a que, puesto que, ya que, dado que
Consecuencias	por consiguiente, por (lo) tanto, en consecuencia, de manera que, de forma que, de modo que
Contraste u oposición	aunque, a pesar de que, sin embargo, en cambio, no obstante
Resumen o conclusión	en conclusión, en resumen, resumiendo, en definitiva
Reformular explicando	en otras palabras, es decir, o sea
Reformular rectificando	mejor dicho, más bien
Matizar una información	de hecho, en realidad
Destacar o concretar algo	especialmente, precisamente, concretamente

서 사용되었던 ‘bien’, ‘por fin’, ‘por último’, ‘finalmente’, ‘incluso’, ‘por tanto’, ‘por el contrario’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앞서 1장에서 소개했던 Martín Zorraquino y Portolés(1999)의 분류와 비교해 볼 때 도입어 (comentador), 탈제어(digresor), 절연 표지어(reformuladores de distanciamiento)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asimismo’, ‘igualmente’는 정보구성 표지어가 아니라 부가접속어로 편성되어 있으며 원인(causa)을 말하기 위한 접속사와 담화 표지어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들이 부가되어 있기도 하다(‘aunque’, ‘a pesar de que’, ‘de manera que’, ‘de forma que’, ‘de modo que’).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입장이다. 스페인어 모국어인을 위한 담화 표지어 소개와 분류가 아니고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 관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학습자에게 이해가 용이한 쪽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담화 표지어에 대한 명칭, 기능, 분류 모두 학습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5) Gente 1 (A1, A2)

Ele에서와 같이 A1과 A2 레벨이 구분되어 교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A1, A2

모두 Gente 1에서 다루고 있다. A1, A2 레벨 구분이 없어서인지 두 단계가 교재 하나로 집약되어서인지 담화 표지어의 사용은 실로 다양하다. 담화 표지어란 명목으로 담화 표지어를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지만 그 기능을 중심으로 6, 7, 11과에서 간략하게 다루었고 교재 본문에서의 담화 표지어 사용도 다수이다. 먼저 6, 7, 11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6과에서는 부가 접속어를 소개하고 있고 7과에서는 tortilla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보구성 표지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Añadir informaciones, opiniones o argumentos
- Sí / No, y **además** es una persona muy especial.(Gente 1, 141)

Primero,... después,... luego,... al final,...(Gente 1, 77)

마지막 11과에서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접속어를 소개하고 특히, ‘entonces’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는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설명이다.

- Para presentar consecuencias podemos usar así que y por eso.
- Su familia era humilde, así que tuvo que trabajar para pagarse los estudios.
- Empezó a llover, por eso anularon el concierto.

Entonces

Es un conector de uso muy frecuente que sirve para:

- referirse a un periodo ya mencionado.
- Me fui a vivir a Italia en el 71. **Entonces**(= en aquella época) yo era muy joven.
- sacar conclusiones de lo dicho.
- A: Ayer Lola tenía una reunión por la noche.
- B: **Entonces** no fue a la cena.
- A: No, no pudo.
- preguntar por las consecuencias.
- A: No hay nadie y yo no tengo las llaves.

B: ¿Y **entonces** qué hacemos?(Gente 1, 160)

교재 본문의 대화에서는 Ele에서와 마찬가지로 ‘pues’, ‘bien’, ‘bueno’ 등이 도입어(comentador)로 사용되었고 ‘o sea’, ‘bueno’가 각각 부연설명 표지어, 정정 표지어로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El organismo necesita unos dos litros y medio al día. Un litro ya nos llega a través de los alimentos. **O sea**, que hay que tomar un litro y medio de líquido al día.(Gente 1, 73)

A: Seguramente ha sido el bacalao. **Bueno**, no sé... Estaba rico, con unos pimientos y unas patatitas...

B: ¿Y de primero, qué has tomado?(Gente 1, 78)

180

181

첫 번째의 예는 인터뷰의 일부이고 ‘bueno’가 나온 대화에서는 화자가 점심에 식사한 것이 뭔가 잘못되어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해설이 대화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bueno’가 앞서 말한 것을 정정하는 표지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읽어야 하는 텍스트에서는 ‘en primer lugar’, ‘en segundo lugar’, ‘finalmente’, ‘por último’, ‘por un lado’, ‘por otro lado’, ‘por una parte’, ‘por otra parte’ 등이 텍스트를 정렬하기 위한 표지어로 사용되었고 ‘además’, ‘sin embargo’ 등이 접속어로 ‘es decir’, ‘en otras palabras’ 등이 앞선 담화를 부연 설명하는 표지어로 사용되었다.

6) Gente 2 (B1)

B1에 해당되는 Gente 2의 특징은 앞선 Gente 1과 다르게 별도로 담화 표지어에 관한 설명과 연습이 8과와 문법 설명(consultorio gramatical)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며 특히, Ele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교재에서 볼 수 없는 도입어(comentador) ‘pues’, ‘bien’에 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다.

- Cuando te ceden el turno.

Bien,... Mmm, **pues**... (Gente 2, 87)

- Al obtener el turno.

Bien... Yo quería decir que... Pues... (Gente 2, 152)

토론에서 말 할 차례가 되어 또는 말할 기회를 포착했을 때 담화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으로 소개되는데 문법 설명(consultorio gramatical)에 나오는 두 번째 예에서 ‘yo quería decir que...’란 표현과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보면 앞선 분석에서 누차 지적했던 도입어(comentador) 설명 필요성에 기인한 결과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위의 예와 같이 담화 표지어 도입어(comentador)란 용어보다 그 기능을 설명한 것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담화 표지에 관한 설명은 주로 8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portar más razones

Además,... Incluso...

-Sacar conclusiones

Así que... Entonces,... Total, que...

-Presentar un nuevo argumento o una conclusión (resaltar un argumento, quitando valor a otros anteriores)

De todas maneras,... En cualquier caso,...

-Contraponer razones

Ahora bien,... Pero... Bueno,... Sin embargo,...(Gente 2, 85)

담화 표지어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가진 표현들을 모아놓은 것이므로 ‘Así que’, ‘Total, que’, ‘Pero’ 등이 포함되었으나 역접 기능을 가진 표현에 ‘Bueno’가 삽입된 것은 적절치 않다. 바로 다음의 연습 문제에 서 그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있다.

Sin embargo, hacer predicciones no es fácil y todos ellos se han equivocado. **Bueno**, todos no: casi todos.(Gente 2, 85)

Gente 1의 예(Gente 1, 78)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역접 관계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을 정당하기위해 사용하는 담화 표지어이다. 8과에서의 언급과 함께 문법 설명(consultorio gramatical)에서 접속어(conector)로서 두 가지 형태

가 소개된다.

-Contraponer ideas

Sin embargo,... A pesar de que... Aungue...

-Expresar la causa

Ya que... como... porque...(Gente 2, 140)

교재의 본문에서는 Gente 1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담화 표지어가 사용되는데 Gente 2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탈제어 ‘por cierto’, 부가접속어 ‘encima’의 사용이다.

¿A partir de qué día exactamente va a estar contigo? Llámame y lo hablamos. **Por cierto**, felicidades. ¿No es un día de estos tu cumpleaños?

El abuelo ha estado un poco resfriado pero ya está mejor. **Por cierto**, no os olvidéis de pasar por casa para dar de comer a los peces y regar las plantas. (Gente 2, 102)

En el trabajo no aguanto a mi jefe; en casa, mis hijos no me hacen caso, y **encima** mi pareja tiene unos celos terribles.

‘Por cierto’의 두 가지 예는 모두 편지글의 형태에서 주제를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담화 표지어이고 ‘encima’는 ‘además’와 비슷한 의미이나 부정적 결론을 이끌어 그 추론 방향이 다르다.

7) Gente 3 (B2)

Gente 3에서는 Gente 2에서 소개된 담화 표지어 설명을 확대,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가 접속어의 설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예시 문장을 소개한다.

Prometen en su campaña que crearán nuevos puestos de trabajo, y que favorecerán el empleo fijo, e **incluso** que darán ayudas para las madres solteras.

Y **además**, los partidos vinculados a los movimientos sociales cada vez son más.

Y **encima**, nos dicen que debemos ir a votar en las próximas elecciones.
(Gente 3, 134)

5과에서 ‘incluso’, ‘además’, ‘encima’ 란 부가 접속어를 함께 소개하고 ‘además’ 와 ‘encima’ 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6과에서 ‘encima’ 의 특징을 다른 예와 함께 설명한다.

-Para presentar información negativa que se añade a otras anteriores.
(Y) **encima(para colmo, lo que faltaba, lo que es peor)** tuvieron un accidente de moto(información negativa).(Gente 3, 144)

물론 학습자 입장에서는 모두 동시에 설명되어졌으면 그 이해가 더 빨랐을 것이고 ‘encima’ 와 같은 기능을 하는 표현들 ‘para colmo’, ‘lo que faltaba’, ‘lo que es peor’ 등이 함께 소개됨으로서 그 이해가 용이했다. 다시 5과로 돌아가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기 위한 표현들이 소개되는데 그 기능이 다양한 ‘bueno’ 에 관한 언급이 있다.

-Recursos para concluir después de una argumentación.
(**Bueno,**) así lo veo yo.
(**Bueno,** al menos) eso es lo que yo pienso.(Gente 3, 138)

논리를 가지고 의견을 내다가 말한 것을 결론짓기 위해 필요한 표현을 말한 것인데 도입어로서의 ‘bueno’ 와 정정 표지어로서의 ‘bueno’ 에다가 결론 표지어로서의 ‘bueno’ 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이다. 6과에서는 ‘organizadores y conectores’ 란 제목으로 앞서 언급한 ‘encima’ 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다른 담화 표지어도 소개된다.

-Para resaltar como más importante una información respecto a las anteriores.
En el fondo, es una buena persona.

De todos modos (de todas maneras), van a despedir a varias personas.(Gente 3, 144)

이전의 정보보다 앞으로 전달할 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의미로 ‘en el fondo’ 와 ‘de todos modos(de todas maneras)’ 를 함께 소개하는데 말할 정보를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n el fondo’ 는 ‘de hecho’ 나 ‘en realidad’ 과 같이 앞서 말한 것의 논증을 강화하여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de todos modos’ 는 ‘en cualquier caso’ 와 마찬가지로 앞선 말과 거리를 두고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기능으로 분리해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8과에서는 종합적으로 ‘organizadores discursivos’ 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소개된다.

-Referirse a aspectos de un tema.

En cuanto a, con respecto a, en lo que se refiere a.

-Aclarar, reformular

Esto es,... es decir,...

-Extraer consecuencias

Por tanto, por consiguiente, ‘tanto es así, que’, ‘es por ello (por lo) que’, ‘es por esta razón (por la) que’ .

-Contraponer datos.

Por el contrario,...

-Concretar, ejemplificar.

Por ejemplo, en concreto, en particular

말할 주제를 언급하기 위한 표현도 포함되었고 결과 접속어에도 다양한 표현이 소개되었는데 주제 언급을 위한 표현은 담화 표지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레벨에 따른 담화 표지어 사용

두 교재의 레벨에 따른 담화 표지어의 사용과 설명에 차이가 있고 Gente의 경우엔 A1과 A2가 한 권의 교재로 되어있어 레벨에 따른 분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교재의 본문에 나온 담화 표지어 사용의 예를 종합하여 레벨별로 분류하고 또 이를 대화에서 사용된 것과 읽을 텍스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누어보면 어느 정도 어떤 레벨에서 어떤 담화 표지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에 있어 대화와 독해 텍스트의 담화 표지어가 겹칠 수 있으나 교재에 그 발췌 근거를 두기로 한다(표 2).

〈표 2〉

	oral	escrito
A1	pues, bien, primero, luego, después, entonces, mira, mire	además, entonces, en cambio, sin embargo
A2	pues, bien, bueno, en fin, al final, además, entonces, o sea, bueno(정정), claro, oye, oiga, hombre, mujer	en primer lugar, igualmente, por otra parte, finalmente, además, incluso, en cambio, por el contrario, entonces (así que, por eso),
B1	pues, bien, bueno, por cierto, entonces, pues(결과), bueno(정정), por ejemplo,	por una parte, por último, por fin, finalmente, encima, incluso, por tanto, en cambio, por el contrario, sin embargo(aunque, a pesar de que), de todas maneras, en cualquier caso
B2	pues, bien, bueno, en fin, además, encima(para colmo, lo que faltaba, lo que es peor), entonces, o sea, mejor dicho, para empezar, para finalizar, bueno(결론), en el fondo, por ejemplo, en concreto, en particular	en primer lugar, por una parte, por un lado, asimismo, igualmente, además, incluso, encima, sin embargo, no obstante, en cambio(aunque, a pesar de que), por tanto, por consiguiente(de manera que, de forma que, de modo que), esto es, es decir, de todos modos, en conclusión, en resumen, en definitiva, de hecho, en realidad, por ejemplo

4. 담화 표지어 분류

앞서 2장의 ‘스페인어 담화 표지어의 특징과 분류’에서 Martín Zorraquino y Portolés(1999)의 분류를 소개했는데 이를 그대로 학습자들에게 소개하기 보다는 Ele B2에서의 분류를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명칭도 그 기능에 따라 쉽게 바꾸고 필요하다면 해당 담화 표지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도 첨가하면 학습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단, 담화 표지어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는 이유 구문과 주제 언급을 위한 표현은 제외하기로 한다(표 3).

〈표 3〉

iniciar una intervención(una respuesta)	pues, bien, bueno
ordenar ideas	primero, en primer lugar, por una parte, por un lado, asimismo, igualmente, por último, por fin, finalmente
cambiar el tema	por cierto
añadir ideas	además, incluso, encima(para colmo, lo que faltaba, lo que es peor)
consecuencia	entonces, pues, por tanto, por consiguiente(así que, por eso, de manera que, de forma que, de modo que)
contraste u oposición	en cambio, sin embargo, no obstante, ahora bien(aunque, a pesar de que)
reformular explicando	o sea, es decir, esto es, en otras palabras
reformular rectificando	mejor dicho, bueno
reformular presentando una conclusión	en cualquier caso, de todos modos
resumen, conclusión	en conclusión, en resumen, bueno
reforzar el argumento	de hecho, en realidad, en el fondo
concretar	por ejemplo, en concreto, en particular
control de contacto	mira, oye, hombre, mujer

IV. 결론

스페인어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가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교재 ‘Ele actual’, ‘Gente’를 A1에서 B2까지 레벨별로 분석하고 좀 더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간추려보면,

- 교재에서 담화 표지어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B1 또는 B2 수준에서 시작되나 교재에서의 실제 언어 사용을 분석한 결과 A1부터 기본적인 담화 표지어의 소개와 설명이 필요하다. 교재 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레벨에 따른 담화 표지어 사용’을 참조하여 학습자 언어 수준과 기능에 따른 담화 표지어를 설명하면 될 것이다.
- 가장 기초적인 대화에서의 답변을 위해서도 담화 표지어의 설명과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며 읽기와 듣기를 위해서도 담화 표지어의 설명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교재의 읽기를 위한 텍스트에서의 실제 담화 표지어 사용

을 살펴봐도 그 필요성은 명확하며 듣기에서도 추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담화 표지어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 담화 표지어가 실제 사용된 텍스트를 통해 소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도 그 이해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작문 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작문 모델을 제시하여 사용된 담화 표지어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게 하여 숙지하게 한 다음 글쓰기에 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담화 표지어를 소개, 설명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대화에서 필요한 것인지 글쓰기에 필요한 것인지 구분된 설명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있어 구어체에서 사용된 것이 그대로 글쓰기에도 응용이 되지만 주로 독해 대상 텍스트에 나오는 ‘asimismo’, ‘en consecuencia’, ‘por consiguiente’, ‘en suma’, ‘no obstante’ 등은 구분이 필요하다.
- 스페인어 모국어인을 위한 담화 표지어 소개와 분류가 아니고 외국어로써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 관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학습자에게 이해가 용이한 쪽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담화 표지어에 대한 명칭, 기능, 분류 모두 학습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심영식(2009), 「스페인어 원어수업에서의 담화 표지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0, No. 1, pp. 261-283.
- Briz, A.(1994), “Hacia un análisis argumentativo de un texto coloquial. La incidencia de los conectores pragmáticos,” *Verba*, Vol. 21, pp. 369-395.
- Bustos Gisbert, J.(1996), *La construcción de textos en español*, Salamanca: Universidad Salamanca.
- Casado Velarde, M.(1993), *Introducción a la gramática del texto del español*, Madrid: Arco/Libros.
- Fuentes Rodríguez, C.(1996), *La sintaxis de los relacionantes supraoracionales*. Madrid: Arco/Libros.

- Martín Peris, Ernesto; Sánchez Quintana, Nuria; Sans Baulenas, Neus(2005), *Gente 1, 2, 3*, Barcelona: Difusión.
- Martín Zorraquino y Portolés, J.(1999), “Los marcadores del discurso,” Bosque, I. y Demonte, V.,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cap. 63, pp. 4051-4213.
- Sim, Y. S.(1999), “Cohesión, coherencia e interlengua,” Tesis doctoral, Facultad de Filologí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Portolés, J.(1998), *Marcadores del discurso*, Barcelona: Ariel.
- Virgilio Borobio y Ramón Palencia(2011), *Ele actual A1, A2, B1, B2*, Madrid: Ediciones SM.

심영식

선문대학교
simjh@sunmoon.ac.kr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2일

Analysis of Discourse Markers in Spanish Tutorials and Study on Effective Instruction thereon

Young-Sik Sim

Sun Moon University

Sim, Young-Sik (2012), Analysis of discourse markers in spanish tutorials and study on effective instruction thereon.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how discourse markers are explained and used in Spanish tutorials, thereby undertaking level-specific analysis of two tutorials, 'Ele actual' and 'Gente' (from A1 to B2) and presenting further effective instru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herein, explanation about discourse markers begin from level B1 or B2. But, actual linguistic use confirm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xplain discourse markers at level A1. Explanation and repetitive practice of discourse markers are required for responses in the most basic conversation, and explanation about discourse markers is mandatory for reading and listening. Such necessity is also manifested in actual use of discourse markers in the reading text of tutorial. In listening,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discourse markers which determine the direction of reasoning. Simply put, discourse markers are indispensable for both verbal and written style at every linguistic level. Based on actual use of discourse markers in Spanish tutorials, this paper hereby classifies discourse markers depending on linguistic level as well as verbal and written style. In basic discourse markers, it doesn't focus on introduction and classification for Spanish native speakers but seeks a new classification mechanism considering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learn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

Key words Discourse Markers, Spanish Education, Spanish Tutorial